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13기 원우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함평 베르힐CC서 50여명 라운딩
다버디 등 그룹·특별상 수상 '풍성'
김철 회장 "매너·응원 에너지 빛나"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기 원우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24일 함평 베르힐CC에서 열려 50여명이 라운딩을 즐기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기 원우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24일 함평 베르힐CC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김철 13기 원우회장과 회원들을 비롯해 최재호 광주매일신문 부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룹을 나눠 대결을 펼쳤으며 그룹별 시상식이 이뤄졌다.

A그룹에서는 유용훈 회원이 1등, 이범일 회원이 2등을 차지했다. B그룹에서는 윤희성(1등)·김신미(2등) 회원, C그룹에서는 정환성(1등)·이해은(2등) 회원, D그룹에서는 고을리(1등)·서근중(2등) 회원이 각각 입상했다.

또한 경기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특별상 부분에서는 니어리스트상을 박광수 회원이, 통기스트상은 김재경·김연수 회원이 거머쥐었다.

이어 다버디상은 김태연, 다과상은 김삼현,

다보기상은 강경희, 다터블상은 정은정, 노력상은 오동근 회원에게 돌아갔고 최고 행운상의 영예는 김삼현·김은석 회원이 안았다.

대회를 마친 회원들은 장소를 옮겨 만찬을 함께하며 원우들 간 끈끈한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김철 13기 원우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회에 참석해주신 13기 원우님들 덕분에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라운딩을 하며 우리 기수의 대단한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낀

한편 필드 위에서 매너와 서로를 향한 응원이 오늘 대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재호 광주매일신문 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참여해주신 모든 원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훌륭한 강의와 뜻깊은 친목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기 원우회는 최근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

입했다.

집행부는 김철 회장을 필두로 전현수·양승환 수석부회장, 박창수·김은석·윤희성·정환성·서동고 부회장, 이은숙 고문, 나중선 감사이사, 양승재 사무총장, 선윤미·정은정 사무국장, 이현정 재무총장, 김천수 재무이사, 권용학·전대수 대외협력이사, 문수호 골프경기이사, 이정민 홍보이사, 고을리 기획관리이사 등으로 꾸려졌다. /주성학 기자

이경률 5·18민주묘지관리소장 취임



제14대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으로 이경률(사진) 서기관이 27일 취임했다. 이날 이 신임 소장은 5·18 민주묘지 1·2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소감으로 "5·18민주묘지에 영면하신 민주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확산 시키겠다"며 "국민 누구나 즐겨 찾고 자긍심을 갖는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가꿔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신임 소장은 광주시 인권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 전시콘텐츠팀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연성 기자



전남도, 육아참여 '100인의아빠단' 8기 출범

전남도는 최근 화순 어울림센터체육관에서 '2026년 제8기 전남 100인의아빠단 발대식 및 도전! 가족올림픽'을 열고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함께하는 돌봄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전남 100인의아빠단'은 보건복지부, 전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빠들이 육아 경험을 나누고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지역 대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발대식은 제8기 아빠단과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토존 체험, 위촉장 수여, 선서문 낭독, 함께육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카드섹션 퍼포먼스에서는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돌봄의 가치를 표현했다.

이어 열린 '도전! 가족올림픽'에선 고리 던지기, 핀 뒤집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기부 문화로 미래 100년 도약 기반 마련"

조선대 '개교80주년 모금 캠페인' 선포식

7만2천 발전기금·장미로드 등 3대 테마
글로벌 리더 육성·대학 지속 성장 뒷받침



이번 선포식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8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캠페인은 ▲CS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CSU 장미로드 ▲One 4 Your Chosun 등 총 3대

테마로 운영된다. 'CSU Again 7만2천 발전기금'은 1946년 설립 당시 7만2천여명의 설립동지가 모은 숭고한 민립정신을 계승해 구상원과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2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운영된다.

"7만2천여명의 염원으로 세워진 조선대가 새로운 기부 문화로 미래 100년을 밝히겠습니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가 민립대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본격화한다.

2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본관 총상실에서 김춘성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대한테니스협회 감사패 수상

전갑수(사진 왼쪽)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테니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지난 26일 광주 오픈 국제 남자 켈린저 대회 결승전이 열린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최재은 총남테니스협회장, 정용진 전북테니스협회장, 김광희 광주시 테니스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회장은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9회째(2020-2021년 코로나 미개최)를 맞은 광주오픈 국제 남자 켈린저 테니스대회를 세계적 수준의 국제대회로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취임 이후 헌신적인 자세로 테니스 등 지역 체육 발전과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전갑수 회장이



보여준 테니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앞장서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전갑수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테니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광주시, 통합특별시 보건복지 부서 간담회

전남도·광주시는 27일 도청 서재 필실에서 두 시·도 복지국장장과 과장 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보건복지부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3월 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앞서 논의한 현안을 점검하고 통합에 따른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선 시·도 조례 통합 추진 현황과 폐지·쟁점 조례 등을 공유하고 통합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기준 마련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방안 ▲의료급



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통합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두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보건복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부서 간 협의를 정례화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정보영 목포지청장, 목포해양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대학원은 "최근 '제7기 해양·수산 최고경영자과정'의 일환으로 정보영(사진) 전남도청장(목포지청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범죄 잡학사전'을 주제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범죄 유형과 실제 사례, 일반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과 범죄 예방 방안이 소개됐다.

정 지청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주요 범죄 사례를 꼼꼼히 짚으며, 지역 리더와 경영자들이 갖추어야 할 준법적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임창 해양산업대학원장은 "전문 경영인들



에게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영 목포지청장은 2005년 사법연수원(34기)을 수료한 이후 부산지검 형사3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전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 목포지청장으로 부임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육과한우촌, 담양읍 저소득층에 한우 전골 기탁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육과한우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5만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 전골 50인분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2024년부터 이어진 나눔 활동의 하나로, 담양백동주공2단지 저소득 가정 50세대에 말반찬을 지원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김해란 대표는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김중화 담양읍장은 "육과한우촌의 후원이 우



리 이웃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담양읍도 지역민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 북부소방, 봄철 산불 예방활동

광주 북부소방서는 27일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1월20일-5월15일) 예방활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북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림 인접마을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 및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무등산장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열고 입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산악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비상상황 시 대처요령과 위험지역 입산 금지 등도 안내했다.

조력한 북부소방서장은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함께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행사

▲제47회 담양군민의날 기념식(담양군 이송모 행정과장)=5월3일(일) 오후 2시 담양종합체육관 축제장 주무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이용 안내: 061-380-3172

▲제25회 담양 대나무 축제&빛나라 빛나, 대나무&대나무가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담양군 김은영 관광과장)=5월1-5일 담양종합체육관,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개막식 5월1일(금) 오후 5시. 이용 안내: 061-380-3152